시간을 수집하는 방법

《욕욕욕_Yok YokYok_欲欲欲》(시대여관, 2019.5.17.-2019.5.31.) 리뷰

최소영

이 전시는 '사라져 가는 공간'을 부여잡고 자신만의 욕(欲)을 뱉어낸 여덟 작가의 이야기이다. 작가들은 시간이 수집된 공간 위에 자신의 색깔이 담긴 작품을 얹었다. 전시가 이뤄진 시대여관은 차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의 어느 오래된 골목에 위치한다. 전시장이 있기는 할까 생각이 드는 음지에는 동문모텔, 동명장 여관 등의 낡은 간판이 가득했고, 담벼락의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떨어진 시멘트 조각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도시와 사뭇 동떨어진 세계로 관객을 이끈다. 전시장까지 가는 길은 꽤 불친절하다. '욕욕욕'이라 적힌 포스터가 붙은 맥줏집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서성여야 한다. 전시는 맥줏집보다 훨씬 천장이 낮은 굴을 지나야 비로소 시작된다. 터널을 빠져나와 선 곳에서 퀴퀴하고 시큼한 곰팡내가 코를 찌른다. 시간의 내음은 공간의 시각적 인상보다 먼저 공기를 타고 넘어와 민감한 후각을 자극한다.

시간을 고스란히 머금은 중앙마당이 있는 ㅁ자 형태의 2 층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그나마 이 건물이 과거에 여관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방마다 붙은 103, 104, 105… 등의 흐릿한 숫자들이다. 덕지덕지 있는 대로 신문지를 덧바른 듯한 벽지도 있고 어떤 방은 색 바랜 꽃무늬 벽지가 켜켜이 쌓여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모퉁이를 지나는 틈에는 그 시절 여관 사람들을 비췄을 거울이 스러져가는 공간의 작품과 관객을 응시한다. 화이트 큐브에 익숙해진 어느 관람객의 시선은 쉬이 한 작품을 응시하지 못하고 무너진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 가까이 깨진 벽 사이에 걸려 있는 거울 등을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방을 연결하고 경계 지어야 할 벽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크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 그 용도가 무색하고, 관객의 혼란은 심화된다.

여덟 작가에게 역시 공간은 그 자체로 작품의 재료가 된다. 때로 공간은 구멍 난 틈을 통해 관음적 시선의 대상이 되거나, 역설적인 색들이 공존하고, 그 자체로 캔버스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가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그간 잠재되어 있던 자신만의 욕(欲)을 공간에 표출해낸다.

입구 왼쪽에 뚫린 벽을 통해 정고요나의 〈Live Cam Painting〉 연작이 놓여있다. 문이 아닌 구멍 난 벽을 통해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로 옆 뚫린 벽 사이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시선의 높낮이가 바뀜에 따라 그의 작품은 다른 방을 엿보는 모습으로 연출되어 보는 이를 긴장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이 일상을 공유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와 회화의 매체가 협업하도록 하는 실험을 해왔다. 온라인 상에 떠도는 유럽의 이름 모를 젊은 커플의 일상을 엿보는 CCTV 영상과 그 일상 중 한 부분이 캡처되고, 그림으로 박제되어 공간 곳곳에 붙어있거나 의자 혹은 쌓인 책더미 위에 놓인다. 속옷만 걸친 채 편안하게 걸터앉아 휴대폰 속 화면을 응시하는 여자, 비키니만 입고 나른하게 엎드린 뒷모습을 보여주는 여자, 옆으로 누워 가만히 허공 혹은 관객을 주시하는 여자 등 작가는 일상의 한순간을 주로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마치 자신을 봐 달라는 듯 뚫린 벽 너머의 공간에 안치되어 있다.

관음적 시선을 유도하던 뚫린 벽은 2 층에 있는 김시하의 <근친상간의 집>에서 자궁 혹은 굴로 해석된다. 아나이스 닌의 소설에서 제목을 따온 작품이다. 작가는 소설 <근친상간의 집>의 등장인물인 '닌'과 '준'을 각각 작품과 공간의 대립으로 설정해 작품을 구상한다. (소설 속에서 닌은 시대가 원하던 여성스러운 자아와 이상적인 예술가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로, 준은 닌이 원하는 예술가의 상징적 존재로 묘사된다) 첫 번째 방은 큰 나무가 하늘을 뚫고 서 있는 동시에 그 옆에는 베개를 꽉 누르는 파란 손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방은 말라가는 색색의 꽃이 쇠창살 달린 창문 밑에 누워있다. 붉은 보랏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운 마지막 방 한쪽 벽에는 식칼과 덫, 가발 등이 갇힌 철창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의 은밀함과 불안함이 한층 고조된다. 이어지는 세 방에는 빨간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검은 숲의 동일한 사진이 연속적으로 붙어 세 공간에 통일성을 만든다. 나란히 이어졌으나 독립적인 서사를 담은 세 방의 작품은 마주하는 벽 사이의 구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또 한 겹의 시간으로 쌓인다.

이렇게 작가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라져 가는 시간이 담긴 공간을 구성해 낸다. 각자가 원래 해오던 작업을 지속하거나 공간에 새롭게 만들어내며 내면의 욕(欲)을 토해낸다. 여덟 구역에 놓인 작품들은 시대여관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의 화이트 큐브가 브라이언 오도허티가 주장했듯 궁극적으로 실제 삶을 지우고 '순수한 형태'로서 예술을 신화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면, 시대여관의 시간이 담긴 공간은 일정한 동선도, 딱히 따라야 하는 어떤 규칙도 없이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미로를 헤매듯 혹은 수수께끼를 풀 듯 작가의 욕망을 느끼면 그걸로 그만인 전시였다.